



Spain 화계전원마을(조성중)

남해군이 귀향을 희망하는 향우들과 지역에서 살고 싶은 도시민을 위해 이동면 화계지구에 스페인풍의 전원마을을 조성 중이다. 앵강만을 바라보는 멋진 자연경관과 주요 기반시설을 갖춘 화계전원마을에서 스페인풍의 집을 짓고 아름다운 전원생활을 보낼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다.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398번지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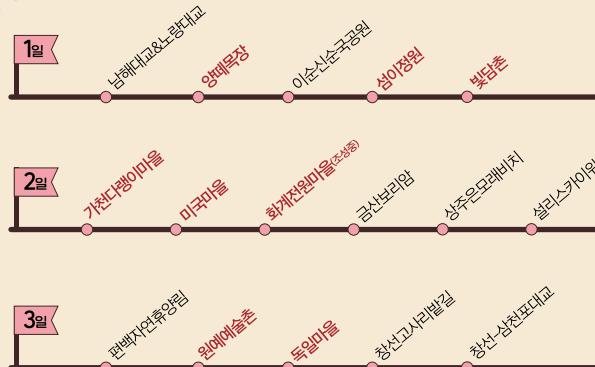


남해에서 미국의 작은 마을을 만날 수 있다. 한국에 돌아와 노후생활을 보내고자 하는 재미교포를 위해 만들어진 마을로 미국식 목재구조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전통주택을 체험하고 싶다면 이곳에 위치한 펜션을 이용해 보자. 입구의 자유의 여신상이 관광객을 맞이한다.

남해군 이동면 미국마을길 6 1588-3415

한국 속 작은 유럽, 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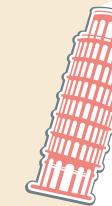
남해군은 섬 전체가 유럽을 연상하게 하는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유럽에 와있는 착각이 든다. 유명 관광명소 외에도 곳곳에 유럽풍의 카페와 펜션 등이 즐비하고, 주민들의 삶에도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한 여행하기 딱 좋은 기후조건까지도 유럽과 비슷하다.



아직도 비행기 타고 유럽 가?
난 걸어서 유럽 간다!

★ Europe In The Namhae ★

남해에서 유럽을 만나다





Germany 독일마을

독일로만드는 가도의
로렌지노 그로



독일 교포들이 실제 독일에서 거주하던 마을을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 속 작은 독일'을 만들어냈다. 지난 2003년 완공 이후 독일마을의 하얀 벽과 오렌지빛 지붕은 남해를 상징하는 풍경이 되었고, 바다가 보이는 풍경에 잘 가꾸어진 정원과 독일식 식당, 독일 맥주집, 독일 공방 등이 이국적인 느낌을 더해준다. 매년 10월경 독일마을 광장에서 열리는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축제이다.

▶ 남해군 삼동면 독일로 92 ☎ 055-867-8897



Switzerland 남해양떼목장

스위스 알프스



산속에 위치한 남해의 양떼목장은 스위스 알프스 느낌의 드넓은 초원과 푸른 하늘, 하얀 양이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자아내는 곳이다. 귀여운 양들과 교감을 나누며 스위스 양치기의 행복한 하루를 즐길 수 있다. 보더콜리의 활성적인 양몰이와 편백숲 산책로도 만나볼 수 있다.

양모리학교 ☎ 055-862-8933
상상양떼목장 편백숲 ☎ 055-862-5300
양마르뜨언덕 ☎ 010-8577-2244



France 섬이정원

프랑스 지베르니
(모네의 정원)



사계절 다르게 각기 피어나는 꽃과 촐마다 다르게 펼쳐지는 경관, 푸른 남해 바다가 보이는 이색적인 풍경은 나만 알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곳이다. 정원에 들어서는 순간 프랑스 북서부 지베르니에 있는 모네의 생가와 그 앞쪽의 정원이 떠오른다. 프랑스의 작은 시골 풍경이 펼쳐지며, 카메라 프레임이 향하는 어떤 곳이든 인생 샷으로 만들어준다.

▶ 남해군 남면로 1534-110 ☎ 010-2255-3577



Greece 빛담촌

지중해
(그리스 살론iki)



조용하고 아늑한 이 마을은 2011년 남해군이 남면 선구리 항촌마을에 조성한 펜션 단지이다. 남해 빛담촌은 '빛을 담은 마을'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아름다운 햇살이 내리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다. 알록달록 아기자기한 건물과 쪽빛 바다, 길을 따라 피어있는 꽃나무가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경이 마치 지중해에 온 듯하다.

▶ 남해군 남면 빛담촌길



Italy 가천다랭이마을

이탈리아 포지타노
(아말피해안)



푸른 바다를 접한 산비탈을 일군 좁고 긴 계단 형태의 다리가 녹아 있는 마을로 섬 특유의 정취를 느끼게 하며 또 다른 자랑거리인 암수바위가 있다. 경사진 비탈에 들어선 아기자기 한집들과 에메랄드 빛 바다는 마치 이탈리아 남부 아말피해안에 있는 포지타노를 연상케 한다. 경사진 길을 따라 마을로 내려가면 아담한 건물 사이로 꼬불꼬불한 좁은 골목길이 이어지는 것 또한 유사하다.

▶ 남해군 남면 남면로 702 ☎ 055-863-3893



European Union 원예예술촌

전 유럽을 한자리에



원예예술촌은 20여 명의 원예 인들이 모여 이룬 마을로, 아름답고 개성적인 21개 소의 주택과 정원이 나라별 이미지와 테마를 살려 조성되어 집집마다 개성 넘치는 원예작품들을 구경할 수 있다. 현대적으로 꾸민 영국식 정원, 풍차가 멋스러운 네덜란드 정원, 통나무가 눈에 띄는 핀란디아, 일본과 뉴질랜드 정원 등 유럽과 세계의 다양한 정원을 감상하며 느리게 산책하는 시간을 가져 볼 수 있다.

▶ 남해군 삼동면 예술길 39 ☎ 055-867-4702